

# ‘루키’ 문경찬 깜짝투 “선발 시켜줘~잉”

## 넥센 방망이 ‘퐁퐁’... 선발 4이닝 무실점

### KIA 시범경기 3연승...마운드 경쟁 가열

이번에는 루키 문경찬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5-2로 승리해 3연승을 거뒀다.

탄탄해지고 있는 마운드, 좌완 임기준에 이어 새로운 재목이 눈에 띄었다. 올 시즌 대졸신인인 우완 문경찬이 선발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팀의 연승을 이었다.

깜짝 등장이었지만 문경찬은 KIA가 노심초사 지켜본 기대주다. 문경찬은 건국대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당시 경찰청 소속이었던 임기준과 21세 이하 세계야구선수권대회 대표로 출전하는 등 대학리그를 대표한 우완투수였다.

KIA는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문경찬을 집중 육성하려 했지만 캠프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문경찬의 출발점은 오키나와 캠프가 아닌 2월 시작된 대만 2군 캠프였다.

이날 신진급 선수들이 대거 선발 출장하면서 넥센 강타선을 상대하지는 않았지만 문경찬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준 첫 선발 등판이었다.

문경찬은 첫 상대 고종욱을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삼자범퇴로 1회를 종료했다. 2회에도 선두타자 강지광에게 삼진을 뽑은 문경찬은 2사에서 문우람에게 2루타를 내주기는 했지만 장영석을 3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2회를 마무리했다. 고종욱에게 세 번째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3회도 삼자범퇴로 깔끔했다.

4회 선두타자 안타에 이어 도루와 폭투로 임병욱을 3루까지 내보냈지만 홈은 허용하지 않았다. 클린업트리오로 나선 박헌도-김지광-서동욱을 각각 유격수 플라이, 3루수 땅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하면서 4이닝 무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4회까지 던진 공은 55개, 직구 최고 구속은 139km를 기록했다.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커브(최고 109km), 슬라이더(116km), 포크(122km) 등 변화구를 선보이며 KIA 마운드 경쟁을 가열시켰다.

문성현-김대우-송신영-손승락으로 이어진 넥센 마운드를 상대한 타선의 집중력도 좋았다. KIA는 4회 필의 우전안타로 맞은 2사 1루에서 이종환의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1-0으로 앞선 8회 무사 1-2루에서는 윤완주의 희생번트에 이어 김다원의 볼넷, 박준태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 한 점을 보였다. 차일목의 유격수 땅볼로 3-0, 곧이어 최희섭의 강한 타구가 3루수 옆을 빠져나가 2타점 적시타가 됐다.

한편 KIA의 불펜은 마운드 전쟁은 13일 목동(넥센)을 거쳐 14·15일 안방(LG전)에서 계속 된다.

시합조 외의 선수들도 합편과 경산에서 경쟁을 이어간다. 12일 두산과 연습경기를 치렀던 2군 선수단은 SK(14·15·17일), 원광대(18·19·20일), 송원대(22일), 삼성(25·26일 경산, 27·28일 함평)과 연습경기를 갖고 시즌 구상을 마무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신인 문경찬이 12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프로야구 넥센과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단장 나운승씨·치어리더 3명 영입

### KIA ‘올 뉴 타이거즈’ 새 응원단 꾸려

2015시즌을 앞두고 KIA의 응원단이 새로 꾸려졌다.

KIA는 나운승(34)씨를 신인 타이거즈 응원단장으로 해 2015시즌 팬과 함께 힘차고 즐거운 응원을 펼칠 ‘올 뉴 타이거즈(All new tigers) 응원단’을 구성했다.

나운승 응원단장은 1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남녀 프로 농구단과 남자 프로 배구단 응원 단장을 역임했다.

나 단장은 “팬으로서 사랑했던 KIA 타이거즈의 응원단장을 맡게 돼 꿈만 같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힘차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팬들을 흥겹게 하고, 선수단에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치어리더 진용도 새로 갖췄다. 수려한 외모에 상큼한 미소가 빛나는 엄지(23)와 큰 키(174cm)와 미모를 자랑하는 김말음(26), ‘당찬 10대 치어리더’로 이름을 끌었던 김민선(24)씨가 새 얼굴로 합류했다.

이밖에 이지은(22) 치어리더와 함께 김정(25), 최미진(25) 치어리더가 다시 응원단상에 선다.

이들은 경기 중 응원은 물론 홈 경기 시



작 전 3군 콘코스에서 이뤄지는 ‘챔피언스 필드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팬들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새로 꾸려진 ‘올 뉴 응원단’은 14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LG와의 시범경기에서 첫 선을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31일 개막

### 올해부터 북·중·남부 3개 리그 나눠 612경기

프로야구 퓨처스리그가 3월31일 개막한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가 12일 2015 퓨처스리그 경기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1990년 퓨처스리그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612경기가 편성됐다.

지난해까지 북부와 남부 2개 리그로 나눠졌던 퓨처스리그는 올해부터 북부리그(경철, LG, kt, 두산), 중부리그(한화, SK, 화성, NC), 남부리그(KIA, 상무, 삼성, 롯데) 등 3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각 팀은 동일리그 팀간 18차전(홈·원정 각 9경기), 인터리그 팀 간 6차전(홈·원정

각 3경기)씩 총 102경기를 치르게 된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퓨처스리그 등록인원은 26명이다.

남부리그에 속한 KIA는 상무 원정으로 올 시즌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4월3일 삼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치른다.

한편 올 시즌 2개 리그에서 3개 리그로 새롭게 시작하는 2015 KBO 퓨처스리그는 시즌이 끝난 뒤 리그 전체를 통합해 타율상, 홈런상, 타점상, 평균자책점상, 승리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쾌한 덩크슛

미국프로농구 보스턴 셀틱스의 재 크라우더가 12일 뎀피스 그릴리지스와의 원경기에서 덩크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골프장 4년만에 500여개 줄어

세계 최다의 골프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골프장 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내셔널 골프 재단’이 4년간의 조사 뒤 발표한 보고서 ‘골프 어라운드 월드’는 전 세계에는 3만4011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중 45%가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골프장 수는 한 때 1만6052개로 정점을 이뤘으나 지난 4년간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는 1만537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1960년대와 2000년대 사이 과잉 공급됐던 골프장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골프장 수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국가의 골프장 수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700개의 골프장이 세워지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에는 사상 처음 골프장이 건설됐다.

/연합뉴스

## 이학주 올해는 자주 보려나

###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결승투런 포함 2타점 맹활약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의 한국인 유망주 이학주(25)가 시범경기에서 자신의 첫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학주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의 센추리 링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 1-1로 맞선 7회초 2점 홈런을 터뜨렸다.

1사 1루에서 타석에 선 이학주는 미네소타 투수 칼레브 탈바의 3구째를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넘겼다. 이학주가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터뜨린 첫 홈런이다.

메이저리그 경기 출전 경험이 없는 이학주는 2010년부터 시카고 컵스, 탬파베이 등의 소속으로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만 출전했으나 홈런을 날린 적은 없었다.

이날 홈런을 포함해 이학주는 2타수 2

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필 필 날았다.

3회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토미 밀론의 초구를 받아쳐 중견수 방면 2루타를 날린 이학주는 5회에는 무사 2루에서 깨끗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다.

7회에는 첫 홈런포를 가동해 시즌 전망을 밝혔다. 이학주의 홈런은 탬파베이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포가 됐다. 탬파베이는 이학주의 홈런에 힘입어 5-2로 이겼다.

/연합뉴스

